

시위대 열차 저지 마추픽추 관광객 1,000명 고립



▲ 페루 마추픽추 인근에서 마을 주민들이 열차 운행을 막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페루 마추픽추 인근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약 1,000명의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기존 마추픽추 셔틀버스 운영사 콘세투르의 계약이 만료된 뒤 새로운 버스회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되자 주민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시위대는 철도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열차 운행을 막기도 했다.

테실루 레온 관광부 장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15일까지 약 1,400명의 관광객이 철도와 육로를 통해 대피했으며, 여전히 약 900명이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주페루 미국대사관은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페루 당국이 가능한 경우 육로와 철도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고 있다"며 "이 시기에 마추픽추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교통편, 유적지 접근, 서비스 이용이 사전 예고 없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시티 진격 10일부터 점령작전, 구호 단체들 "집단 학살" 성명

이스라엘군이 10일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지상 공세에 돌입해 전차와 병력이 시가지를 밀고 들어가면서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공습으로 통신망이 차단돼 주민들은 구조 요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전쟁 발발 이후 가자 내 사망자는 6만5천 명을 넘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이후 지금까지 최소 65,062명이 숨지고 165,697명이 부상했다. 보건부 집계는 유엔과 국제 전문가들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 평가한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며칠간 150차례 이상 공습을 가한 뒤 지상군을 투입했다. 고층 건물이 파괴되면서 난민 텐트촌 인근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통신 차단으로 주민들은 대피를 조율하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도 직격탄을 맞았다. 가자시티 라틴시아동병원은 공습으로 지붕과 수조가 파괴돼 일부 환자가 긴급 대피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마스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호 단체들은 이번 공세가 사실상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의료구호단체 'MAP'의 가자 지부장은 "병원조차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이는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향하는 대피 통로를 이틀간 개방했다. 전쟁 전 약 100만 명이 살던 가자시티는 현재 35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정치적 반향도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까지 하마드는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이스라엘 편에 선 실패한 중재자"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지상공세를 "집단 학살 전쟁의 연장"이라고 규탄했다.

국제 구호단체 20여 곳도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인도적 참사이자 유엔 조사위원회가 결론 내린 집단학살"이라며 정치·경제·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스라엘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전후 가자를 "부동산 황금광"으로 만들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토지 개발 수익 분배 논의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철거 단계가 끝났으니 이제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며 "전쟁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해 민간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현재 가자에는 여전히 48명의 인질이 남아 있으며, 절반 미만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세로 가자시티 전면 장악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가 체레브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자시티 방문 경험을 전하며 "남쪽으로 향하는 팔레스타인인의 끊임없는 행렬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이 도시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유엔 관계자는 가자시티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규정했다.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최소 20만 명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했으며, 이 가운데 5만5천 명은 지난 주에 탈출했다.

세리토스점

조마루 감자탕

JOMARU GAMJATANG

감자탕

간장배짬

런치스페셜
(월 - 목: 11am - 3pm)

HOT

\$13.00

• 배해장국 • 불고기덮밥
• 설렁탕 • 해물돌솥비빔밥
• 해장라면 *Dine in only

가격 부담 없이 즐기는 점심!

주류완비

삼계탕

\$25

포리곰탕

\$25

여름 특선

물냉면
비빔냉면

*그 외 다양한 한식 메뉴 준비되어 있습니다.

T.562.467.7979

11900 South St. #110
Cerritos, CA 90703

Open 7 Days 11am - 12am (Kitchen Close 11:30pm)

@JomaruUSA